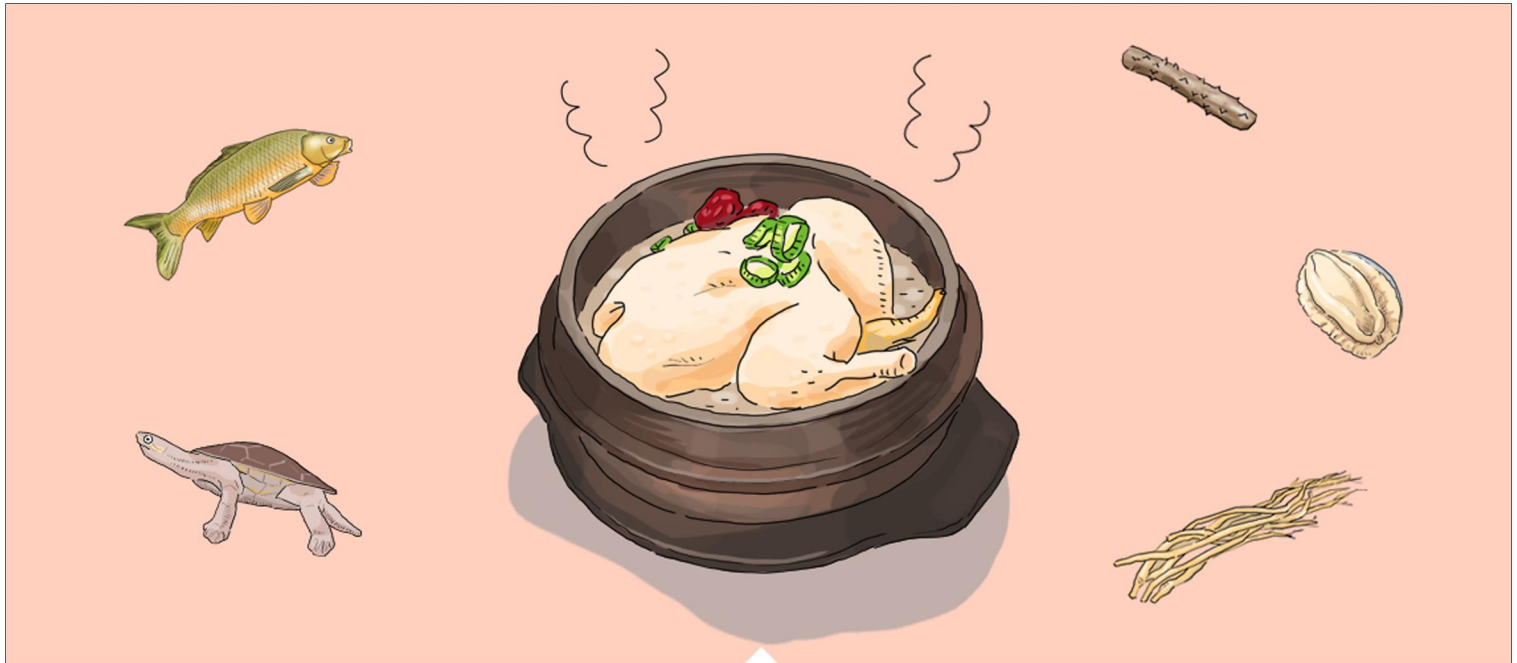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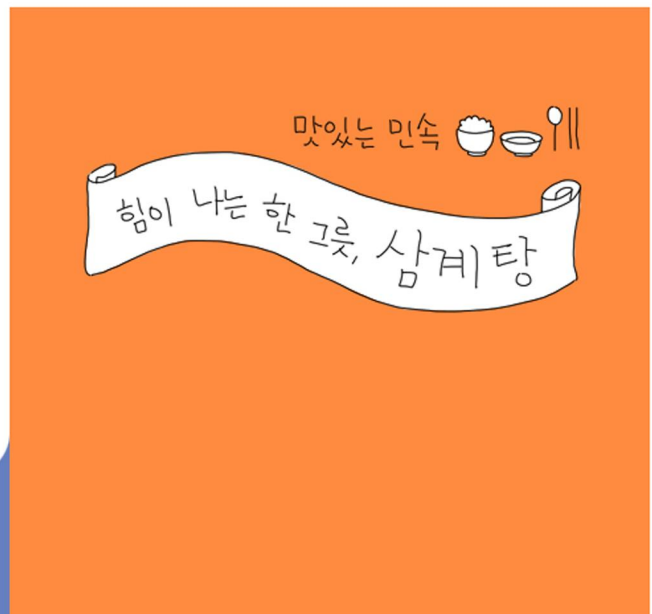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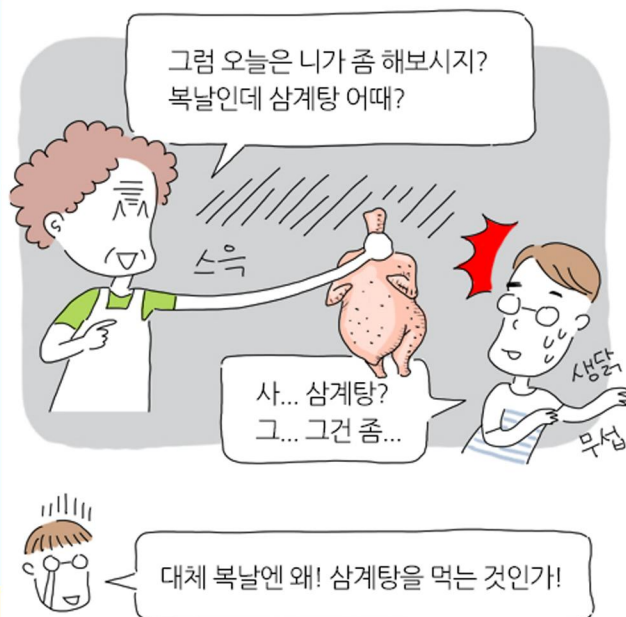


힘이 나는 한그릇, 삼계탕

☞ > 재미있는 민속 > 맛있는 민속

2015년 07월 24일 읽음: 394 댓글: 2





伏

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
형상의 한자, 복(伏).
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여름은
불(火)에 속하는데
너~무 더워지면 가을을
의미하는 쇠(金)마저 불에
굴복해 엎드린다고 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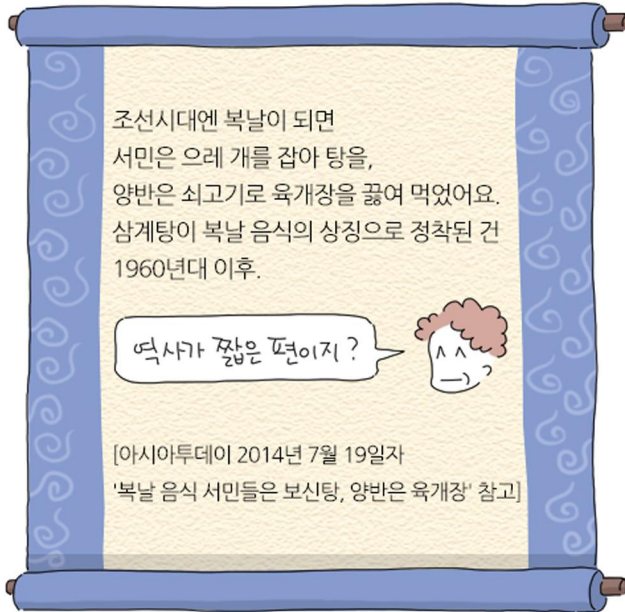
엎드릴 (복)!



그런데 개 역시 숲에 속하는 동물이라
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를 먹어 부족한 기운을 보충했다고.
이게 무려 중국 진(秦)나라 때부터 시작된 풍습이라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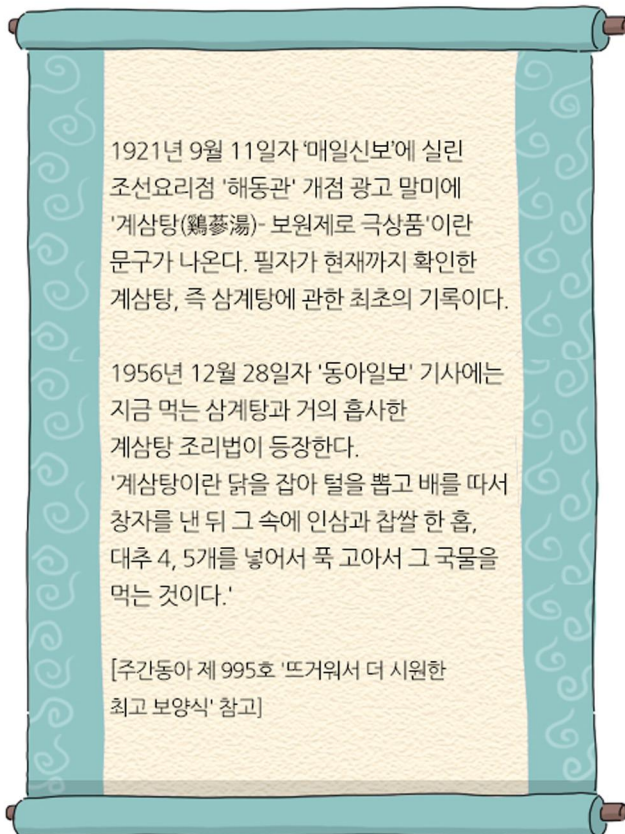
음양오행설이라~ 믿거나 말거나지만
더운 여름철엔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해지기 쉬우니
영양이 풍부한 보양식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죠~



근데 왜 '삼계탕'인 거죠?



인삼과 닭으로 끓인 탕이니 삼계탕(蔘鷄湯)이죠~
일제강점기때 닭백숙에 인삼을 말린 가루를 넣은 것이 시초.
'계삼탕'이라 부르다 60년대부터 '삼계탕'으로 바뀌었다고.



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 맛 T.T



영계로 만든 건 영계백숙,
삼계탕에 잉어나 자라를
함께 넣어 끓이면 용봉탕이죠.



엄나무나 옻나무, 황기 같은 약재를 넣은 삼계탕도 있고
전복을 넣은 럭셔리 버전도 있구요.
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~



조선시대 궁중에선 복날 신하들에게
'빙표(氷票)'를 하사했답니다.
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겨울에 캐서 저장해 둔
귀한 얼음을 나누어 준 것.



더위를 이기기 위해 계곡이나 그늘진 곳을 찾아
하루를 즐기는 풍습도 있지요.



여러분의 기억 속에 치맥은 어떤 존재인가요?
치맥에 얹힌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
그 추억, 함께 나누어요!

다음 호 주제는 '치맥' 입니다!

응모기간 7월 29일 ~ 8월 10일

당첨자 발표 다음 호 카툰에서!

글·그림_ 신예희

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. 여행과 음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<배고프면 화나는 그녀, 여행을 떠나다>, <여행자의 밥 1, 2> 등을 썼다.

'수제비'에 관한 추억 사연 공모 당첨을 축하합니다!

조정숙 님, 위진 님, 이항지 님, 신윤숙 님, 박용희 님

당첨되신 분은 ☆여기를 눌러서 필요한 정보를 남겨주세요.

시원한 팔빙수를 보내드릴게요!